키이엔지니어링, 홍콩에 현지법인 설립

키이엔지니어링이 홍콩에 진출한다.

키이엔지니어링은 홍콩에 환경관련 영업 및 마케팅 업체인 'KEY ENVIRONMENTALS LIMITED'를 이달 12일 설립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키이엔지니어링은 7억8천9백여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회사는 중국 폐수처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환경업체에 대한 투자업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엔엠알시스템, 배관녹방지 기술 세미나 개최

엔엠알시스템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배관 녹방지 및 부식배관 갱생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앤비코리아, 중국과 450만달러 공급계약

대덕밸리 환경기술 전문업체인 ㈜이앤비코리아(www.enbkorea.com, 대표 김현용)가 중국 환경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이앤비코리아는 최근 "중국 환경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업체인 우푸(Wufu)사와 자체 개발한 "상온코팅용 이산화티타늄(TiO_2) 광촉매"에 대한 45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이번에 공급키로 한 제품은 "코팅용 광촉매 원료"와 "폐수처리시스템" 등으로, 우선 광촉매 원료 40t을 내년 초까지 중국에 보내고 나머지 150t은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광촉매는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는 물질로, 기존의 정화방법으로 분해하기 어려운 유해물질을 완전 분해하는 데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의 일부 기업만이 이 기술에 관한 제조 특허를 갖고 있다.

폐기물 소각 촉매제 코오롱 독점 판매권

코오롱건설은 로열더치셸 그룹의 CRI캐털리스트사가 보유한 폐기물 소각 촉매제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최근 체결, 이를 이용한 '다이옥신 제거 시스템'을 용인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앞으로 이 시스템의 판매 및 운영을 자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에 맡겨 생활 쓰레기는 물론 산업 및 병원 폐기물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데다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효용성이 높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제일엔테크, 청하케미칼과 업무제휴

제일엔테크는 청하케미칼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에멀전연료 제조시스템 생산시설 설치 및 제품판매를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청하케미칼은 에멀전 연료제조 시스템의 구성성분인 유류유화제 월 1천2백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제일엔테크는 이 제품을 사우디에 수출하면서 이뤄지는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또 현지공장은 제일엔테크 현지법인인 "사우디 제일엔테크 케미칼"사의 쥬베일소재 공장내에 시설키로 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시설투자비는 제일엔테크가 제공하며 청하케미칼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제공키로 했다.

그린케미칼, 공정단축 불소처리제 개발

환경벤처기업인 그린케미칼 (대표 소재춘 www.green-chemical.co.kr)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불소공정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불소처리제(제품명 GREEN 2100)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품은 2단계 공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 불소처리공법에 비해 1단계 공정만으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으며, 찌꺼기 발생량과 폐기물 처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을 반도체공장 폐수처리에 시험적용한 결과, 8.4ppm에 달했던 불소농도가 2.8ppm으로 크게 줄었으며, 찌꺼기 발생량도 기존에 폐수 5.74g에서 3.01g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으며 일본과 대만, 중국에는 특허 심사를 받고 있다. (☎054-278-4611)

바이오휠 이용, 하수 고도처리 기술 개발

충남도내 한 중소기업에서 오염 하수의 질소(N)와 인(P)을 획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하수처리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여에 위치한 ㈜동성하이테크(대표이사 윤경여)는 지난 8년여의 연구끝에 정화조에서 유기물질, 질소, 인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완전 침지형 회전매체(Biow heel)를 이용한 하수 고도처리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바이오 휠은 휠 둘레에 일정한 두께의 고농도 고밀도 활성 미생물막(Biofilm)을 형성케한 것으로 질소와 인 처리에 획기적인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계룡하수처리장에서 시험가동한 결과, 질소의 경우 유입 당시 46.7ppm이던 것이 정화 이후 6.7ppm(법정기준 20ppm)으로 85.2%, 인(P)은 8.8ppm에서 0.5ppm(법정기준 2ppm)으로 93.2%의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다.

또 질소와 인 등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기술로는 별도의 정화조와 처리공정을 거쳐야 했던 것을 하나의 정화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설치 부지와 비용은 물론 운전 관리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설치비용은 처리용량 1t당 200만~230만원으로 기존 처리방식으로 평균 250만~280만원 가량 들던 것에 비해 2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운전비용도 15%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한편 ㈜동성하이테크는 1987년 설립된 오폐수정화시설 전문 생산기업으로 고효율 축산폐수 정화조 개발 등으로 충남도 선도기업에 선정되는 등 연매출 100억원의 도내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비전21, 하수처리물품 30억 공급

코스닥등록 환경벤처인 ㈜환경비전21(대표 김동우)이 전남 부안군 하수처리장에 30억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롯데건설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환경비전21이 지난 4월 미국의 EME로부터 중대형 하수처리시설 기술을 도입한 이후 단일 규모로 이뤄진 최대 공급계약으로 전년도 매출 대비 80.5%에 해당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종전의 소형 하수처리장에서 중대형 하수처리장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범위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수주 및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